

아이보다 벌이 ... 일하는 30대 여성 증가

저출생 심화와 맞물려 한국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내놓은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동일 연령대 남성과 타 연령대 여성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이후 가파르게 높아져 최근 40~64세 여성을 앞질렀고, 30대 남성과의 격차도 좁혀졌다고 밝혔다.

KDI가 전보다 8.8%포인트 높아진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요인을 분석해보니 유자녀 여성 감소가 5.3%포인트(60%),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 한국의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직장에서 업무 중인 여성 직장인들. 사진=screws.co.kr

3.9%포인트(40%)를 차지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 총괄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일차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단기적으로 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저출생 심화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와 노동공급 감소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경제 성장 둔화와 정부·연금 재정 악화 같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축의금, 그냥 아는 사이 평균 8만원 ... 친한 사이는 17만원



▲ 결혼식장 식사비와 동반자 여부가 축의금 액수 결정의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사진=shutterstock

한국인들은 결혼식 축의금으로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는 평균 8만 원 친한 사이는 평균 17만 원을 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촌 이내 결혼식이라면 평균 90만 원을 축의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KB국민카드가 고객 패널 '이지 토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축의금 세부 금액대를 보면 알고 지내는 사이에는 5만 원 이하가 53%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이하 2%, 20만 원 초과 1%로 평균 8만 원을 냈다.

친한 사이의 경우 5만 원 이하 3%, 10만 원 이하 52%, 20만 원 이하 29%, 30만 원 이하 13%, 30만 원 초과 3%로 평균 17만 원이었다.

촌수를 기준으로 하면 3촌 이내 결혼식은 평균 90만 원을, 4촌 이상은 평균 26만 원의 축의금을 냈다.

축의금 액수를 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결혼식장 식사비와 동반자 여부였다. 76%의 응답자가 '동반자가 있으면 축의금을 더 낸다'고 답했으며, 61%는 '식사 값이 비싼 곳이면 축의금을 더 낸다'고 대답했다.

'나 홀로 사장님' 늘었다 ... 5년째 증가세

한국에서 고물가와 고임금으로 종업원을 두지 않고 '인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15년 만에 최대 규모인 437만 명을 기록했다.

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3만 8,000명 증가한 672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뜻한다.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3만 4,000명 늘어난 437만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455만 8,000명) 이후 가장 많다. 물가 상승에 따



▲ 직원 없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이 영업 전에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msogy.com

른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나 홀로 사장님'은 2018년 이후 5년째 증가세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4만 5,000명이 늘었던 20~30대 '청년 사장님'은 올해 1만 4,000명 감소한 반면 지난해 2만명 줄었던 50대 '중년 사장님'은 올해 5만 2,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나 홀로 자영업자는 지난해 8만 8,000명 이어 올해도 3만 5,000명 증가했다. 50대 이상 중장년 나 홀로 사장님만 지난해보다 8만 7,000명 늘어난 셈이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퇴사하는 중년이 늘었고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자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 분석이다.

Kyung Sook Yu, D.D.S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